



간추린 청렴 소식

[1] 제주지검, '청렴 올레 간담회' 실시

제주지검(검사장 조재연)은 제주시내 청렴 유적지를 부, 과별로 탐방하며 청렴이 무엇 인지 직접 체험하는 '청렴 올레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내 19개 청렴 유적지와 관계된 미션을 수행하며 조상들의 청렴·애민정신을 되새긴다고 하네요 ^^

[2] 밀양지청, '기관장 청렴 강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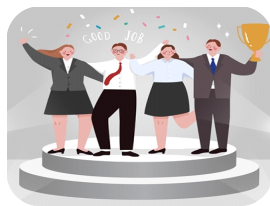


밀양지청(지청장 반종욱)은 '19. 10. 17.(목), 기관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강의하였습니다.

검찰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가치를 함께 당부하며 청렴에 대한 지청장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3] 평택지청, '청렴 인센티브 강화 방안' 재정비

평택지청(지청장 구자현)은 청렴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청렴활동 우수자 및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 기회와 수단을 다양화하였다고 하네요 ~

[4] 고양지청, '경조사 사전 상담제도' 안내

고양지청(지청장 김관정)에서는 직원들이 경조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조사 사전 상담제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조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고양지청의 소식이었습니다



칭찬합니다

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인공인

서울중앙지검 **김지영 검사** 는

마음이 담긴 정성스런 조언을 통해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 2019. 7.부터 10.까지 5건의 감사편지를 받았 습니다.

아래는 김지영 검사에게 온 편지 중 일부입니다.

...인생 선배로서 해주셨던 조언과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면 앞으로 절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절대 아니라는 검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물이 맺혔고 많은 것을 느끼고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에 보탬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내가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땐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해 틀리고 바보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 영화 '죽은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 중 -



11월의 추천영화

죽은시인의 사회

(1990년 개봉 / 감독 피터위어)는

억압적인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뉴 잉글랜드의 명문고교 웰튼에 '아이들 스스로 삶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진 키팅선생(로빈윌리엄스분)이 부임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아말로 사회적 반목과 긴장을 줄이고 상호 신뢰하는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일깨워주는 명대사입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때때로 사람들은 능력과 분수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치장하고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가치를 인정 받으려고 합니다.

허나 내면의 실속 없이, 단지 드러난 겉모습을 통해 얻어진 공지는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

허영심은 자신이 가진 행복을 망각하게 하고 이따금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작은 허세 조차도 경계했던
청백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 전기 문신 **정석견(鄭錫堅, 1444~1500)**은 성품이 강직하여 남에게 보여지는 허례허식에 구애받지 않고 청렴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각 관청에는 일종의 수행원으로, 품계와 직위에 따라 내려주는 구사(丘史)라는 관노비가 있었는데 관원들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권위를 자랑하였고, 구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거느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사가 없는 홍문관 정4품 응교(應敎)자리에 있던 정석견은 구사를 빌리는 대신 자신의 종 한 명씩을 말 앞·뒤로 두어 길을 인도하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세 사람이 한 줄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산(山)자 같다' 하여 '**산자관원(山字官員)**'이라고 손가락질 하며 초라한 행렬을 비웃었습니다.

이에 동료들은 그의 체통 없음을 나무랐고, 정석견은

“남에게 구사를 빌리는 것은 눈앞의 일이고,
따르는 호위가 많은 것은 등 뒤의 일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구사를 빌리는 일은
단지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니,
차라리 산자관원이 될지언정 하고 싶지 않네”

라고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은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과 청렴을 바탕으로 우러나온 자긍심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과거 공중전화의 황금기, 고객이 남기고 간 이 돈만 해도 14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통화 후 남기고 간 100원 미만의 동전'을 일컫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금전 ② 낙전 ③ 땡전

※ 힌트 : Monthly청렴 10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19. 11. 18.까지
-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0월 정답은

③ **익선관**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



추!
당첨

정○○(수원), 도○○(의정부), 김○○(춘천), 장○○(해남),
최○○(부산), 이○○(대검), 박○○(서울중앙),
박○○(창원), 허○○(대구서부), 이○○(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방향도 안알려주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친절하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해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안내판이 정비되어 있더라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청사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상호 소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배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법률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절차를 잊어버릴까봐 자세히 글씨로 적어 주었습니다. 조그만 성의표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남원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할 태도와 진심어린 배려에 칭찬을 남겨준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